

# 목포·익산·고창 '문화관광도시 닷' 올렸다

### 문체부 '예비문화도시' 선정...1년 후 최종 결정엔 5년 간 200억 지원

목포시와 익산시,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 문화관광도시 토대를 마련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국 41개 지자체가 신청한 제3차 예비문화도시에 목포시와 익산시, 고창군 등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 5년간 200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문화사업 관련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표

목포시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표'를 비전으로 지난 1년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시민참여 간담회, 분과별 회의,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문화의 형성과 발달을 통한 문화시민 양성,

문화적 실험을 통한 목포만의 문화 창조, 문화교류와 문화마켓의 융합, 문화소비 확대의 문화산업 성장을 목표로 문화갯마을·문화다방·문화파시 플랫폼 등 24개 사업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올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이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가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계획된 주요사업을 풍부화 문화예술 자원과 준비된 시민거버넌스 문화활동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관광거점도시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해 문화도시 사업의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 목포시는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 향후 1년간 다수구미 문화마당, 뜰공포 기획단 등 9개 사업을 추진한 후 2021년 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체부의 최종 평가와 심의를 받는다.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익산시는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이 주제다. 특히 '문화의 생산자'로서 문화자원을

직접 찾아내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실현하며 시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문화도시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역문화가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고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

익산시는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문화·예술·시민단체 등 활동가와 시민들로 익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와 함께 문화도시 기획강연과 토론회 등을 통해 예비문화도시로의 도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치유문화도시 고창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주제로 '치유와 힐링 도시'를 표방한다.

고창군은 지난해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조직 등 지역 문화인력과 양성한 공동체 활동을 펼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문화도시 고창 공동선언과 2차례에 걸친 대군민 원탁토론회 등 2년여간 내실있는 사업



지난 8월 열린 역사문화도시 익산시민 이야기 주간 '삼삼오오' 결과 공유회. <익산시 제공>

계획을 준비했다.

고창군의 산, 들, 강, 바다는 오랜 '집콕'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활력을 되찾기에 최적의 장소다. 실제 선운산, 고창갯벌, 고인돌, 운곡삼사르습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상하농원 동물교감 체험,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 스파 등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박종배·유정영·김형조 기자 pjb@

## 남원여고 "인문학으로 코로나 넘자"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행복' 주제 강좌·콘서트

남원여고에서 '인문학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기고 '행복'을 찾는 릴레이 인문학 강좌·콘서트가 열려 화제다.



남원여고가 최근 코로나19를 이기고 '행복'을 찾는 릴레이 인문학 강좌 및 콘서트를 열었다. <남원여고 제공>

27일 남원여고등학교 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시기지만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데 필요한 내면의 힘과 통찰력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함께, 참여강사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공감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인문학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남원여고 교사들과 지역의 인문학바람을 일으켰던 참배우터가 힘을 모아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강좌를 듣기만 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강사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책을 사전에 읽고, 자신의 생각이 '생각노트'에 정리해 강좌를 통해 강사와 직접 소통하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강사로는 대학 폐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환적 삶의 태도로 관찰의 힘을 통해 '새 박사'가 되

어 생명의 참 의미를 책과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생태학자 김성호 전 서남대 교수, 평생 소아병동 혈액암 환자들의 따스한 벗이었던 황태주 전 전남대병원장, 지리산 섬진강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백석 시인의 동화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남원 운봉 출신 오치근 작가 등이 참여했다. 특히 강사 대부분이 남원 출신으로 학생들에게 고향사랑도 함께 선물했다. 송혜순 남원여고 교장은 "이 행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들이 진정한 주체로 서기 위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인공섬 금란도 재개발 급물살...군산시·서천군 기본협약 체결

### 준설토 투기장 2022년 완료...해양문화관광지구로 개발

군산시가 충남 서천군과 인공섬 금란도(金蘭島)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해양수산부·전북도·충남도와 함께 '군산-서천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추진 및 금란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 추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행정

적·실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으로 소통체계 구축이다.

이번 협약으로 준설토 투기장(해상매립지)으로 활용이 완료(2022년)되는 금란도를 해양문화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란도는 군산-장항항 준설토 수용을 위해 금강하구에 조성된 투기장토 유휴부지에 대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논의가 됐다.

특히 동백대교 개통(2018년 12월)을 계기로 금

란도를 활용한 군산-서천 상생 선도사업으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강입준 군산시장은 "서천군과 상생협약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란도 재개발 추진으로 시민편의 및 생태공간 조성 등 성장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지역상생협의체를 본격 가동과 지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란도 및 장항항 재개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로봇 봉제시대 '성큼'...국내 첫 '스마트 봉제 공장' 익산에 등지

섬유산업에 5G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봉제 공장이 국내 최초로 전북에 등지를 틀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익산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5G 봉제 스마트팩토리' 개소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팩토리는 팩토리(공장)와 스토어(매장)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 주요 기술로는 로봇이 인터록, 오버록, 본봉의 3가지 봉제 공정을 맡고 5G 기반 MEC(Mobile Edge Computing)이 구현된다.

EMC는 통신 서버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서버를 위치시켜 사용자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보내는 절차를 생략해 처리하는 기술이다. MEC 구현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불량품 검출이 빨라진다. 또 무인이송 장비(AGV·Automated Guided Vehicle)는 봉제품 등을 자동 운반한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스마트팩토리가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섬유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섬유산업에 5G와 ICT를 접목한 스마트 봉제공장이 국내 최초로 익산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문을 열었다. '5G 봉제 스마트 팩토리' 내부. <전북도 제공>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은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허리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